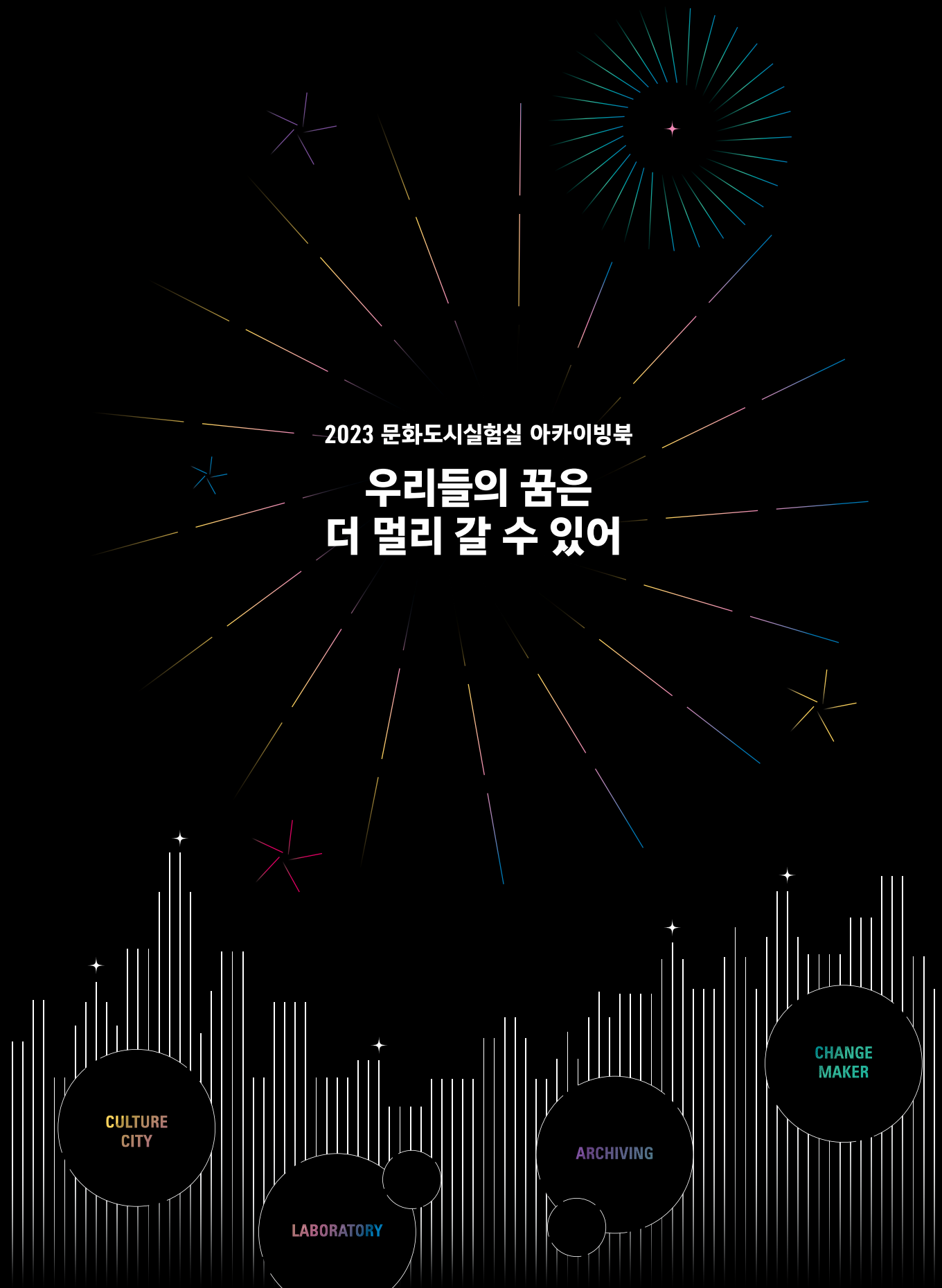




2023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
우리들의 꿈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2023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 ★ 우리들의 꿈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2023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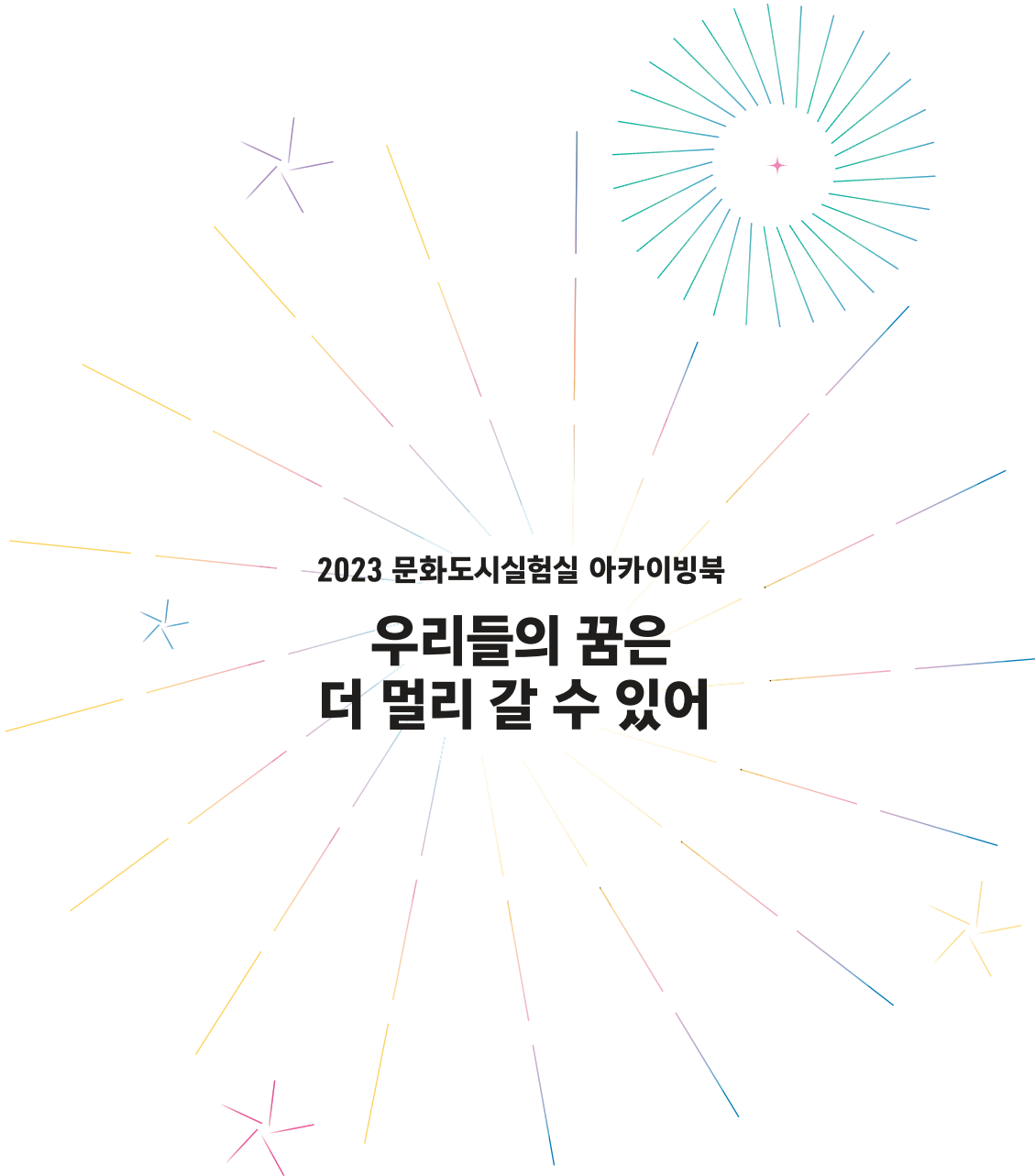
우리들의 꿈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CULTURE
CITY

LABORATORY

ARCHIVING

CHANGE
MAKER



2023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

**우리들의 꿈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CONTENTS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04
실험실 진행 과정	05
체인지메이커 활동 사진	06
문화도시실험실 체인지메이커	
의정부 제일시장 경기북부 NO.1 Market 곽신애	12
어서 와 전입 청년, 의정부는 처음EASY 김선호	16
갤러리카페전시회 합의정아트페스타 나선우	20
점프(점자프로젝트) 박민아	24
내 마음에 똑똑 박선후	28
2023 갈라진 앞머리 안혜정	32
독큐멘터리 임정선	36
펜스아트클럽 장종민	40
컬렉티-부(Collecti-Bu) 김은비	44
레드카펫영화제 김혜연	48
국도거리 양준필	52
의기투합자회사 조혜영	56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에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도드라지게 성공하거나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험보다는 문화적인 방식으로 자기 길을,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저마다 기업인, 대표, 작가, 음악가, 개발자 이거나 예술가, 회사원이기도 한 이들은 직업과 전공 분야, 살아온 세대와 개인이 역사·도시를 바라보는 태도, 관심 주제나 대상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다 달라서 의미 있고 다른 가운데 또 닮은 부분이 있어 흥미롭기도 합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시작점까지 이어진 실험실은,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습니다. 12개의 실험을 지켜보며 새삼 느낀 점은 일에도 삶에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설을 세웠음에도 실험을 진행하며 길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계획대로 실험이 흘러가지 못함에 자책하는 이도 있고, 참여자가 많은 실험을 보면 내 실험이 작게 보여 실패한 건 아닐지 슬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본업보다 실험실에 정과 열을 쏟는 경우도 있고, 체인지메이커이기 전에 시민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즐거움을 갖고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서로 부딪히고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사람에게는, 12가지의 태도, 12개의 실험이 존재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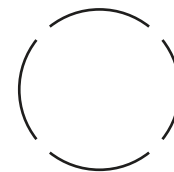
실험실의 이야기를 만나는 동안 우리는 현실과 직면할 용기를, 도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나답게 시도해 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값진 이야기는 이들이 간직한 시행착오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자기 불확신의 시기를 관통하면서 실패와 실수까지도 고스란히 겪고 고유한 삶의 무늬로 만들어낸 시간이야말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응원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실험실 이후로도 여전히 저마다 다른 흔들림과 변화를 겪고 있을 이들의 실험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완벽한 정답이거나 성공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열두 명의 체인지메이커가 이 세상에 내온 목소리에는 언제나 큰 뭉의 용기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2023 문화도시실험실’ 공고문에는 체인지메이커를 ‘문화적인 실험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시민활동가’라 칭합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마주하는 우리는 이 실험의 결과를 성공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로 내릴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포개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는 여러 생각과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문화도시의정부의 다양한 실험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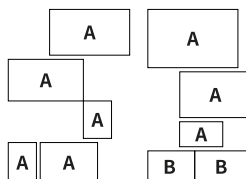
실험실 진행 과정



구분	진행 일정		활동 내용
생각확장 워크숍	1	5월 3일(수) 14:00~18:00 / 4h	• 오리엔테이션 • 문화도시실험실 소개
	2	5월 10일(수) 14:00~18:00 / 4h	• 상호 컨설팅을 통한 실험가설 설정 • 실행계획 세우기
	3	5월 17일(수) 14:00~18:00 / 4h	• 실행계획 수정보완 및 연계자원 탐색 • 5분 챌린지를 통한 실험실 디벨롭 및 공유
	4	5월 24일(수) 14:00~18:00 / 4h	• 문화도시실험실 중간발표회 리허설 및 피드백
	5	6월 8일(목) 15:00~18:00 / 3h	• 문화도시실험실 중간발표회
	6	6월 29일(목) 15:00~18:00 / 3h	• 사업비 정산 관련 교육
실험 진행	중간 공유회	7 7월 28일(금) 16:00~18:00 / 2h	• 실험과정 1차 중간공유회
		8 8월 26일(토) 16:00~18:00 / 2h	• 실험과정 2차 중간공유회
		9 10월 5일(목) 16:00~18:00 / 2h	• 실험과정 3차 중간공유회
	실험실별	10 7월 1일(토)~11월 30일(목)	• 사업비 교부 및 실험실 사업 진행
실험결과발표		11 12월 8일(금)	• 실험실 활동공유회



체인지메이커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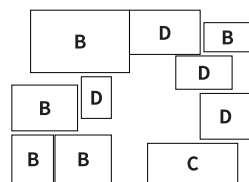


A 생각확장 워크숍
B 중간발표회



문화도시실험실
중간발표회 QR코드





B 중간발표회
C 실험과정 중간공유회
D 최종공유회



Change Maker

체인지메이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문화도시실험실>에서의 체인지메이커란 도시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적인 실험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시민활동가(예술가)를 뜻합니다.

의정부 제일시장 경기북부 NO.1 Market

실험내용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
추진기간 2023년 8월 1일~12월 31일
추진장소 의정부조리학원 및 의정부제일시장 일대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곽신애

세부진행 일정

누가 7팀(10명)의 요리대회 참가자, 약 800여 명의 시민분들
언제 11월 17일 - 제일시장의 가을 식재료를 활용한 제일신선요리대회 개최
 11월 18~19일 - 제일시장 팝업스토어 진행
어디서 의정부조리학원, 의정부 로데오거리
무엇을 제일시장의 가을 식재료를 활용한 제일신선요리대회와
 제일시장 팝업스토어
어떻게 신선한 재료를 직접 장 봐서 요리대회에 참여 /
 팝업스토어를 통해 제일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왜 제일시장 식재료의 신선함을 알리고, 팝업스토어에 활용 /
 신선한 콘텐츠를 통해 제일시장을 홍보



실험실 키워드

#제일시장 #요리대회 #팝업스토어

실험실 가설

**제일시장에 새로운 콘텐츠가 생긴다면
 흥미롭고 재밌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어떤 분들이 함께해 주셨나요?**

‘의정부 제일시장 경기북부 NO.1 Market’ 실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의정부에 사는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의정부를 떠나고, 의정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의정부에 분명히 다양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의정부의 자원 중 당장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고민하던 중 제일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갔을 땐 힘들고 귀찮은 공간이었지만 친구와 함께 갔을 땐 흥미롭고 다양한 재미가 존재하는 제일시장을 바꿔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경기북부 최대의 전통시장이지만 정작 청년은 거의 가지 않는 곳, 하지만 각 점포마다 의정부와 시민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제일시장이 문화도시와 함께할 때 재밌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시장을 주제로 제일신선요리대회, 팝업스토어를 기획하였습니다. 제일신선요리대회를 통해 10명의 요리대회 참가자를 만났고 제일시장 팝업스토어를 통해 800여 명의 시민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팝업스토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되었고요. 제일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일시장을 소개하고, 제일시장을 자주 다닌 분들에게는 설문을 통해 장단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약 340명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들간 진행된 제일시장 팝업스토어에 총 800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팝업스토어 프로그램 중 ‘제일시장 기억의 조각’이라는 게임을 기획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제일시장 온라인 장보기 페이지 안에 있는 상품을 맞추며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준비한 게임이었습니다. 팝업스토어 설문에 응답한 340명의 시민 중 59%가 ‘제일시장 팝업스토어에서 새로 알게 되었거나 인식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해당 게임을 뽑았으며 팝업스토어가 창의적이어서 제일시장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일시장을 모르던 분들에게 제일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고,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시민들의 소망처럼 재밌는 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시장 활성화 실험에 새로운 가설을 세운다면?

“전통시장인 제일시장과 요리대회, 팝업스토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다면, 지역자원이자 관광자원인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싶습니다. 시장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어서 와 전입 청년, 의정부는 처음EASY

- 실험내용** 의정부로 전입 온 청년들의 정착을 돕고, 의정부를 함께 알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 추진기간** 2023년 11월 4일~지속진행
- 추진장소**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감터 및 의정부 전역
-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김선호

세부진행 일정

- 누가** 체인지 메이커,
토박이 청년 5명, 전입 청년 20명
- 언제** 1회차 전체 모임: 11월 4일(토)
2회차 전체 모임: 11월 11일(토)
3회차 전체 모임: 11월 18일(토)
팀 모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12회의 팀 모임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어디서** 의정부 청년센터와 의정부 전역에서
- 무엇을** ① 1, 2, 3회차에는 모든 토박이
청년과 전입 청년이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의정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② 팀모임은 참여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배드민턴, 맛집, 보드게임,
카페, 게임 등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자유롭게 만나 활동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어떻게** 게임을 통해 의정부를 알아가거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이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왜**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다른 전입 청년들과 토박이 청년들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의정부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 키워드

#전입 #의정부토박이 #청년
#네트워킹파티 #소모임

실험실 가설

의정부로 전입 온 청년들이 토박이 청년들과 함께
의정부를 알아보면 의정부에 더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의정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까? 서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어서 와 전입 청년, 의정부는 처음EASY’ 실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023년도에 타 도시에서 의정부로 이사 온 청년입니다! 전입 후 살고 있는 의정부가 더 궁금해졌는데요. 도시, 생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혼자 찾아보기 어려워서 의정부에 거주 중인 지인에게 도움을 얻고 했습니다.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서 의정부에 놀러 다니기도 했고요. 문득 저와 비슷한 어려움과 외로움을 가진 다른 청년들은 의정부로 전입을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약 59명의 많은 청년이 전입·전출하고 있습니다(22년 통계자료 기준). 동년배인 전입 청년들과 토박이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면 장기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청년이 의정부를 알아가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실험을 기획하였습니다.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전입 청년, 토박이 청년 등 참여자 모집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 전입해 왔던 기억을 떠올려 전입 시 꼭 방문하게 되는 행정복지센터 14곳의 협조를 받아 게시판 및 전입 업무 창구에 홍보 포스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당근(지역 커뮤니티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정부로 전입해 온 지 2년 이하인 전입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약 50명의 전입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고, 신청서를 바탕으로 2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토박이 청년은 온라인 홍보와 지인분들께 수 소문하여 의정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전입 청년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았고, 약 10명의 신청자 중 5팀을 이끌어줄 5명의 토박이 청년분을 선정했습니다.

만약 의정부의 청년을 대표하는 공간인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전입 청년들에게 청년센터의 존재와 청년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대어해주는 공간을 빌려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청년들은 3번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프로그램 전후에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심사별 모임을 통해 의정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신곡배드민턴장, 송산사지근린공원 등 의정부를 대표하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의정부를 알아갔습니다.



전입 청년의 지원자가 50명이나 되었군요.
이처럼 실험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서와 전입 청년,
의정부는 처음EASY
QR코드



이 실험을 기획할 때, 전입 청년들은 단순히 재밌는 프로그램보다 나와 같은 상황인 전입 청년들을 위한 정보와 니즈가 담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참여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로 새롭게 이사 온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전입 청년과 전입 청년 그리고 토박이 청년과 전입 청년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1인 가구 청년들을 1인 가구라 칭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 전입 청년들이 반응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카페전시회 힘의정아트페스타

- 실험내용** 카페라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미술작품 감상 경험
& 전시자와 참여자가 모두 함께 즐거운 축제 같은 아트페어
- 추진기간** 2023년 10월 25일~11월 30일
- 추진장소** 로데오거리 카페달아 2층, 3층
-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나선우



세부진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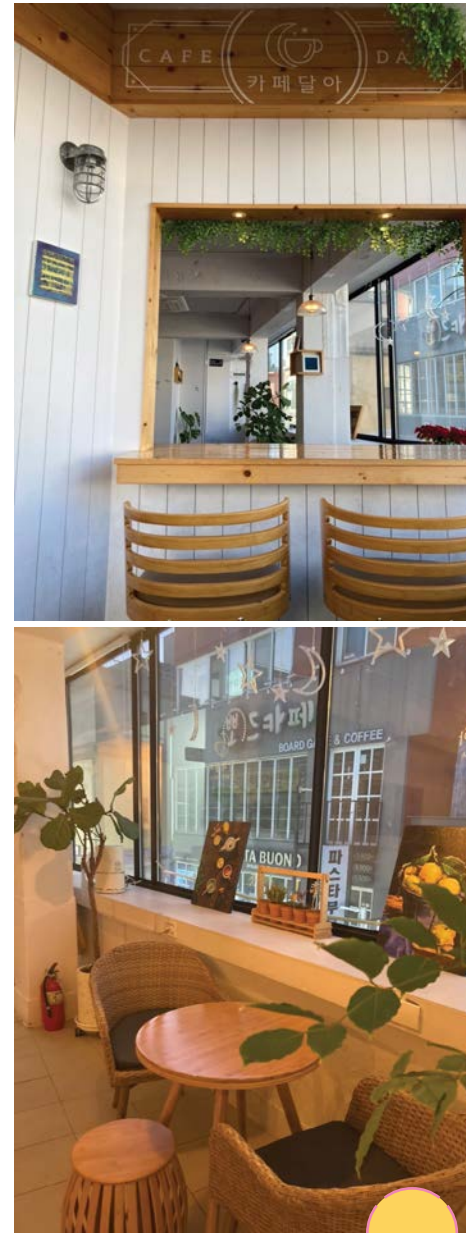
- 누가** 체인지메이커 나선우
- 언제** 2023년 10월 25일~11월 30일
- 어디서** 인스타그램 계정 @artfesta_u와 로데오거리 '카페달아'
- 무엇을** 기획자가 픽한 힙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아트페어를 개최
- 어떻게** 작품과 굿즈를 감상하고 부담 없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
- 왜** 카페를 이용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미적 체험이 녹아들기를 바라는 마음

실험실 키워드

#아트페어 #아트페스타 #시각미술 #청년작가
#지역작가 #갤러리카페 #갤러리카페전시회
#로데오거리 #카페달아

실험실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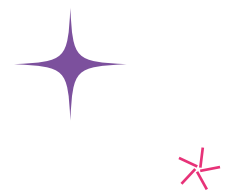
평소 시각 미술작품, 예술작품을 어렵게 느끼고, 감상하러 전시장을 찾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공간에서 작품을 우연히 자주 접하다 보면, 점점 더 새롭고 다양한 시각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전시장을 찾게 되고, 미술품 또는 굿즈를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와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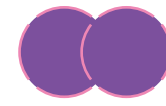
서울의 한 대학의 미술학부 강사이자 시각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체인지메이커 나선우입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지역작가 공감갤러리 공모를 통해 의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험은 코엑스 등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큰 아트페어들이 의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예술가들 사이에서 의정부가 힙한 도시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생겨난 변화가 있나요?
체인지메이커 본인의 변화도 좋고, 함께한
작가님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힙한 청년 작가 세 분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의정부 지역작가 한 분을 섭외하여 아트페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의 작품들을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의정부에서 힙하다는 로데오거리의 한 카페에 전시했어요. 전시기간 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카페에서 마음껏 만나고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맛보는 호사를 누리며 감상하고 싶은 작품들을 마음껏 감상한 제가 이 실험실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달라진 카페 분위기와 변화를 알아차리고 소소한 감상을 나눈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 재미가 있었으며 작가님들의 굿즈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기획자로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힙의정아트페스타’ 실험실의
주 공간이었던 ‘카페달아’ 카페 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정부 로데오거리, 제일시장에 인접한 ‘카페달아’는 2층과 3층 두 개 층으로 되어있고 하얀 벽이 많아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2022년 저의 ‘100만원 실험실 - 갤러리카페 제휴 맺기’에 호의적으로 응해주셨던 사장님께서 이번 기획에도 흔쾌히 동참해주셨습니다. 실험실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편의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었고 유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역상인과 협업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시니, 저의 실험이 더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험실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쓴 지점은
무엇인가요?**

시각예술 미술작품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보다는 바라보았을 때 ‘색감이 좋다’, ‘재밌다’, ‘기분이 좋다’라는 편한 감상이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시 공간을 일상생활 공간인 카페로 선정하게 되었죠.

**‘힙의정아트페스타’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전국 공모를 통한 아트페어(아트페스타)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팝업 갤러리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힙의정 아트페스타’가 의정부시의 더 많은 공간, 거리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점프(점자프로젝트)

실험내용 점자 메뉴판을 통해 점자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프로젝트

추진기간 7월~11월

추진장소 의정부 일대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박민아 | 팀원 박민현, 김찬미



세부진행 일정

누가 점프 팀원, 매장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
언제 8월~10월
어디서 의정부시 내에서
무엇을 매장에서 사용될 점자 메뉴판을 제작
어떻게 신청 모집을 통해
왜 누구나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점자 #점자메뉴판 #시각장애 #배리어프리

실험실 가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점자 표기를 늘려갈 수 있을까?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와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점프를 진행하고 있는 박민아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카페에서 일하며 실험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휠체어를 탄 손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매장 입구의 계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것을 보았고, 이후 많은 분이 더 편하게 매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경사로와 점자 메뉴판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간단한 경사로 설치에 비해 점자 메뉴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이 까다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곳곳에 전통 있고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가 많지만, 그중 점자 메뉴판이 비치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서야 점자 표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더 많은 매장에 점자 메뉴판이 비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점자 표기가 부족한 원인을 '익숙하지 않아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점자 표기 방법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점자 표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실험을 구상하였습니다.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점자를 발견하는 모두에게 점자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점자와 점자 표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점자 표기를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 당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점자라는 주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기 위해 점자의 모양을 닮은 ‘점프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점프곰 스티커에 점자를 넣고, 점자 내용은 스티커 뒷면 QR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점자에 대한 관심과 사용을 유도했습니다.

점자 인쇄의 높은 단가나 점역 과정의 복잡함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점자 열쇠고리나 점자 메뉴판 등 일상의 작은 부분이지만 자주 마주칠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점자 표기를 의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실 참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점자 메뉴판 제작에 참여할 매장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지만, 리플렛을 통한 홍보가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리플렛에 점프를 소개하고 점자 표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담아 제작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직접 전달해 드리며 점프 활동을 설명해 드렸을 때 더 많은 사장님이 점프의 취지와 의도에 공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홍보하거나 소통할 때 점자라는 주제가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캐릭터 ‘점프곰’을 활용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덕분에 많은 분들께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위해 2023 제 1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에 참여해 점자 키링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더 다양한 연령층에도 점자를 소개할 수 있었고, 점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점자 표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체험에 참여했고, 점자를 알릴 뿐만 아니라 점프 활동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점프(점자프로젝트) QR코드



‘점프’는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스스로 점자 표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나 음식점, 카페는 물론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점자가 필요하다고 떠올리고,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어 표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제작 업체에 주문하지 않더라도 휴대용 점자 인쇄기나 점필, 점판 등을 활용하면 점자가 표기된 소품(도구)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명함, 열쇠고리, 메뉴판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자 표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직접 만들거나 주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점자 표기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생각지 못한 더 많은 다양한 곳에 점자 표기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똑똑

실험내용 음악 제작 과정 속 다양한 예술 직업 체험을 통한 음악 심리상담 프로젝트
추진기간 2023년 9월 2일~11월 3일
추진장소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의정부 일대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박선후

세부진행 일정

누가 청소년과 체인지메이커 및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언제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어디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실, 의정부 일대
무엇을 뮤직 힐링 프로젝트 ‘내 마음에 똑똑’ 실험을 통해 음악제작 과정 속 다양한 직업, 예술체험 및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심리 상담, 가사 쓰기, (작곡) 시퀀싱 프로그램(앱) 다뤄보기, 레코딩, 스타일링(패션 일러스트, 코디 등),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올바른 사고 형성, 나아가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고와 힘을 길러 심리적 독립을 이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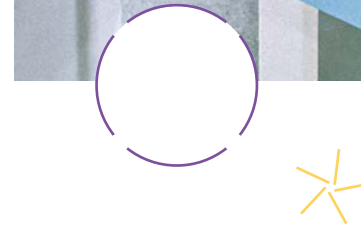
실험실 키워드

#음악 #심리 #청소년 #힐링 #예술 #체험

실험실 가설

‘내 마음에 똑똑’은 음악 제작 과정 속 다양한 예술 체험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리 상담, 가사 쓰기, 레코딩, 스타일링,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고 수행하며 진짜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실험입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극복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버티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와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저는 뮤지션 ‘부기독BoogieDogg’이란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정부 송산동에 위치한 ‘굿맨칼라광택’이란 자동차 외장 관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타고 가시다 보면 송산역을 지날 때 보입니다.

방송을 통해 ‘이효리’, ‘아이유’, ‘빅뱅’, ‘장윤정’, ‘김장훈’ 등등 스타들을 만나 랩을 알려주며 ‘스타 랩 선생님’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음악 이외에 대학 전공을 살려서 패션디자이너 출신이기도 하고 패션쇼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핸드메이드 작가 300인에 선정되어 전시와 강의, 아트디렉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뮤직 힐링 프로젝트 ‘내 마음에 똑똑’을 개발하여 음악 제작 과정을 통한 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하며 쌓인 감정의 골이 터지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쑥 찾아온 감정들에 휘둘려 내가 내가 아닌 불안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답답함과 궁금함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음악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혹은 그저 들어주고 내가 왜 이러는지 물어라도 볼 수 있는 실 곳이 있으면 어떨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생겨난 변화가 있나요?
체인지메이커 본인의 변화도 좋고, 참여자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기존에 혼자서 진행했던 실험을 의정부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게 되면서 나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된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변화를 예상한 적이 없었기에, 변화는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참가자들끼리 카톡방에서 가사 쓴 걸 공유했었는데요. 정리를 하다가 너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시킨 적도 없는 일이었는데, 참가자들이 의욕이 넘쳐서 스스로 힘들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수업이 아니다. 그냥 본인의 마음 상태만 편하게 적어줘라.”라고 말하며 쓴 가사를 정리해주었습니다. 다들 왜 우리끼리 고민하면서 밤을 샌거냐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저는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자부심과 참가자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 계속 제 실험에 대해 실행 중에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의 만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접점이 있었나요?**

시민들과 체인지메이커와 참가자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60여 명, 직접 홍보물을 돌리고 온라인 개인 계정 등으로 구인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자 모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만족했었고 늦게 안 분들은 소식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실험이 의정부에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심리 상담, 가사 쓰기, 녹음, 촬영 등의 대면
일정이 많은 실험이었는데, 공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동아리방에서 심리상담, 가사 쓰기 등 실내 실험을 진행하고 MV 촬영, 레코딩 등은 의정부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의정부 관내 지역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인프라 부족으로 업체와 장소를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곳곳을 걸어 다니며 체크하고 미팅하고 사용할 만한 곳을 메모해서 활용했습니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직접 촬영해보며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등에 적용하여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와 이번 실험에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 실험에서 가사 쓰기 같은 경우 제가 뮤지션의 입장에서 주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시인분을 초청하여 가사를 포함한 글쓰기에 대하여 토론하고 배움을 받는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같은 감정의 표현이라도 시인과 뮤지션이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지의 차이와 참가자들이 좀 더 쉽게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진행한 저도 참가한 참여자도 만족했습니다.

‘내 마음에 똑똑’ 실험실은 계속되나요?

실험을 생각한 초기에도 그랬듯 이번 실험을 청소년으로 한정했던 것이지 ‘내 마음에 똑똑’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실험이고 실험의 철타들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실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별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연령대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뮤직힐링프로젝트 ‘내 마음에 똑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boogiedogg303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주시거나 ho2nie@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똑똑하기

우울증 TEST

1.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깬다. / 너무 많이 잤다. YES / NO
2.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 늘었다. YES / NO
3.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 안절부절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YES / NO
4.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흥미가 사라졌다. YES / NO
5.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YES / NO

0 ~ 1 우울증 아님 / 2 ~ 3 우울증 진행 / 4 ~ 5 우울증 단계

@boogiedogg303
blog.naver.com/boogiedogg

문화도시 의정부



2023 갈라진 앞머리

실험내용 <여성 운동 경험 프로젝트> 운동 단절 여성들을 위한 운동 발판이 되기 위하여!

추진기간 2023년 7월~12월

추진장소 의정부시 내 체육시설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안혜정 | 팀원 강채빈, 김신혜



세부진행 일정

- 누가** 의정부 시민 여성 참여자들
언제 2023년 7월~12월
어디서 의정부시 내 체육시설
무엇을 풋살, 농구, 재활, 운동회 및 야유회
어떻게 홍보 포스터를 통해 운동 클래스를 신청한 시민참여자와 함께
왜 느슨한 연대를 통해 꾸준히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여자운동 #팀스포츠 #운동 #느슨한연대

실험실 가설

운동을 통해 느슨한 연대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22 문화도시실험실로 진행되었던 ‘갈라진 앞머리’를 통해 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범한 시민 참여자였다가, 동네 운동 친구들이 생기면서 팀 운동 매력에 빠졌습니다. 2023년에는 갈라진 앞머리 프로젝트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받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운동하고 운동의 재미를 알리기 위해 올해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혼자 진행하라고 하면 못 했을 것 같지만 원작자(기획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험자로 한 번, 운영자·기획자로 한 번!
 2년 연속 갈라진 앞머리와 함께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첫해에 참여했을 때 체력과 근육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꼈어요. 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분 연습 경기만 해도 지쳐 쓰러져 종료 휘슬만 들리면 바로 누울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이후로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하고 살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직접 ‘2023 갈라진 앞머리’를 진행하게 될 정도로 여성 팀 운동에 진심이 되어버렸네요. 게다가 저처럼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과 올해 처음 본 참여자들과 여성 풋살팀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태도나 팀이 발전하

는 이런 과정이 지금도 참 신기해요. 아직 정식 팀 창단을 하지 않아 유니폼은 없지만, 주말마다 대회를 위해 우리끼리 훈련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니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의정부에 운동 친구들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무지랭이 풋살장이나 활기체육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면서 심심했는데, 이제는 활동적인 것을 같이할 사람들이 생겨서 의정부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풋살 대회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었나요?

매주 주말마다 10~12명의 시민 참여자와 풋살, 농구, 재활 클래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헤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연락처도 공유하고 실험실 프로젝트가 끝나도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죠. 마침 풋살 클래스 강사님께서 갈라진 앞머리도 다른 팀과 경기를 해보야한다면서 민우회 소속 해방FC와 친선경기를 두 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끼리 연습 경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갈라진 앞머리가 한 팀이 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팀이 되다니?! 갑자기 전우애가 생기면서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짧은 운동 경력으로 인해 경기는 모두 졌지만, 앞으로는 이기는 팀이 되고자 풋살 팀을 만들어보자는 의견과 매주 모여서 훈련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생기면서 클래스가 아니라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사님께서 대회에 나가보자고 먼저 제안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풋살팀을 만들고 2023년 12월 9일, 정식 풋살 대회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20명 사이의 사람들이 평일 새벽이나 주말 오전에 모여서 대회 준비를 할 정도로 느슨한 연대에서 조금은 단단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팀 운동은 어디서 진행하시나요?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낙양동에 민락 체육시설이라는 체육시설이 생겼습니다. 예약하기는 어렵지만 무료로 대관이 가능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넓어서 풋살 클래스 신청 인원이 많을 때 민락 체육시설에서 하는 클래스가 꽤적하고 좋았습니다. 그 외 사설 체육시설은 의정부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실험실 취지를 설명하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무지랭이 풋살장과 활기체육공원 족구장에서 연습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가능해 눈치 싸움(?)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활기체육공원에 풋살장 공사를 시작했다는 현수막을 보고 희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정부시 관내 체육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갈라진 앞머리 팀원 모두 점점 운동에 진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의정부문화재단 소속(?) 갈라진 앞머리 풋살 팀이 만들어져서 많은 풋살 대회에서 출전하고 싶어요. 더욱 유명한 팀이 되고, 저희의 활동을 보며 운동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갈라진 앞머리'가 풋살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료 클래스도 제공하고, 클래스가 없는 날에는 사고 모임처럼 자율 연습, 훈련을 통해 의정부 안에서, 지역 안에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큐멘터리

- 실험내용** 의정부에 사는 강아지들의 행복한 일상과 그에 따른 펫티켓을 알리는 영상 제작
- 추진기간** 2023년 7월 20일~11월 30일
- 추진장소** 애견카페, 우리소극장, 동물병원, 숲, 가정집 등등
-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임정선 | 팀원 박소연(프로덕션매니저), 김경범(촬영감독), 박지민(제작진행 및 스크립터), 김채연(조감독), 허정욱(기획·디자인), 서동훈(작곡), 손재아·이하은(댄싱극장 사회), 강아지 12마리



세부진행 일정

- 누가** 의정부에 거주하는 강아지와 반려인들
- 언제** 2023년 7월 20일~11월 30일
- 어디서** 풀멍파크(애견카페), 샵, 녹양동물병원, 집, 우리소극장(댄싱극장) 등에서
- 무엇을** 반려견들의 행복한 모습과 그에 따른 올바른 펫티켓 문화 확산을
- 어떻게** 댄싱극장과 펫티켓송 캠페인 등 영상촬영을 하면서
- 왜** 올바른 펫티켓을 널리 알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독큐멘터리 #반려동물 #녹양동물병원 #풀멍 #우리소극장 #펫티켓송 #김경범감독
#부산국제영화제 #오몽 #경기북부의정부댄싱이모임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와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교육하고 있고,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있는 의정부시민 임정선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반려인 인구 1,500만이 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이웃들이 올바른 펫티켓을 지키며, 반려동물들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문화도시실험실 '독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생겨난 변화가 있나요?
체인지메이커 본인의 변화도 좋고,
함께한 반려인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의정부에 거주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행복한 모습 이면에 유기견, 펫숍 등 어둡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껴서 반려인의 한 명으로서, 이 실험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정부댕댕이 모임이나 경기북부 댕댕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팀들과 자연스럽게 유기견, 펫숍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실험이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여러 애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어 미리 준비했으나, 출연하기로 했던 20살짜리 강아지 '구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촬영하지 못한 게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애견카페 풀멍파크에서 강아지 12마리와 동시에 촬영할 때는 강아지들이 모여 있지 않고 각자 놀아서 촬영팀이 간식을 들고 유인하면서 촬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소극장인 우리소극장에서 펫티켓송을 배울 때도 한 마리가 짖으면, 모두가 흥분해서 따라 짖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강아지들의 떼창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큐멘터리’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우리 지역의 산책로 등지에서 촬영을 하였고, 일부터 큰 업체가 아닌! 우리 동네의 작은 동물병원(녹양동물병원), 오뎅(애견미용실), 우리소극장, 애견카페 등에서 촬영하여, 방송 시 자연스럽게 지역의 여러 자원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독큐멘터리’는 계속 되나요?

독큐멘터리는 OBS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 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제기될 것 같아요. 향후 독큐멘터리 시리즈로 2, 3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웃음)



펜스아트클립

실험내용 미술관이 없어도 시각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재료 개발

추진기간 2023년 6월~11월

추진장소 의정부시 호원동 외미마을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장종민



세부진행 일정

누가	펜스아트클립 체험을 신청한 시민
언제	2023년 11월
어디서	호원동 외미마을
무엇을	펜스(울타리)를 꾸미는
어떻게	펜스아트클립을 고정하여 그림을 만들어내며(픽셀아트처럼)
왜	시각예술체험, 향유, 낙후된 마을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시각예술 #예술체험 #공공미술 #펜스아트 #예술재료

실험실 가설

미술관이 있어야만 시각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을까?

체인지메이커 자기소개와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장종민입니다. 의 정부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시각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동네를 거닐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펜스(울타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도구(도화지)로써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스의 빈 사각형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예술재료 ‘펜스아트클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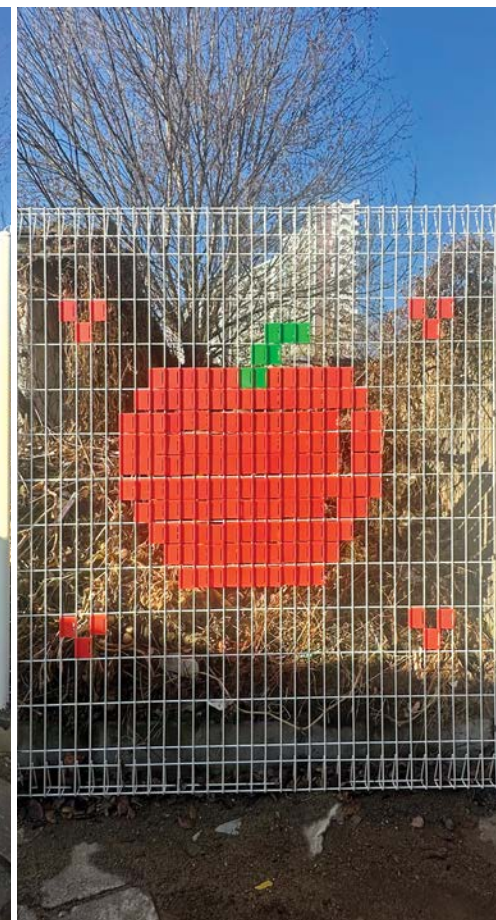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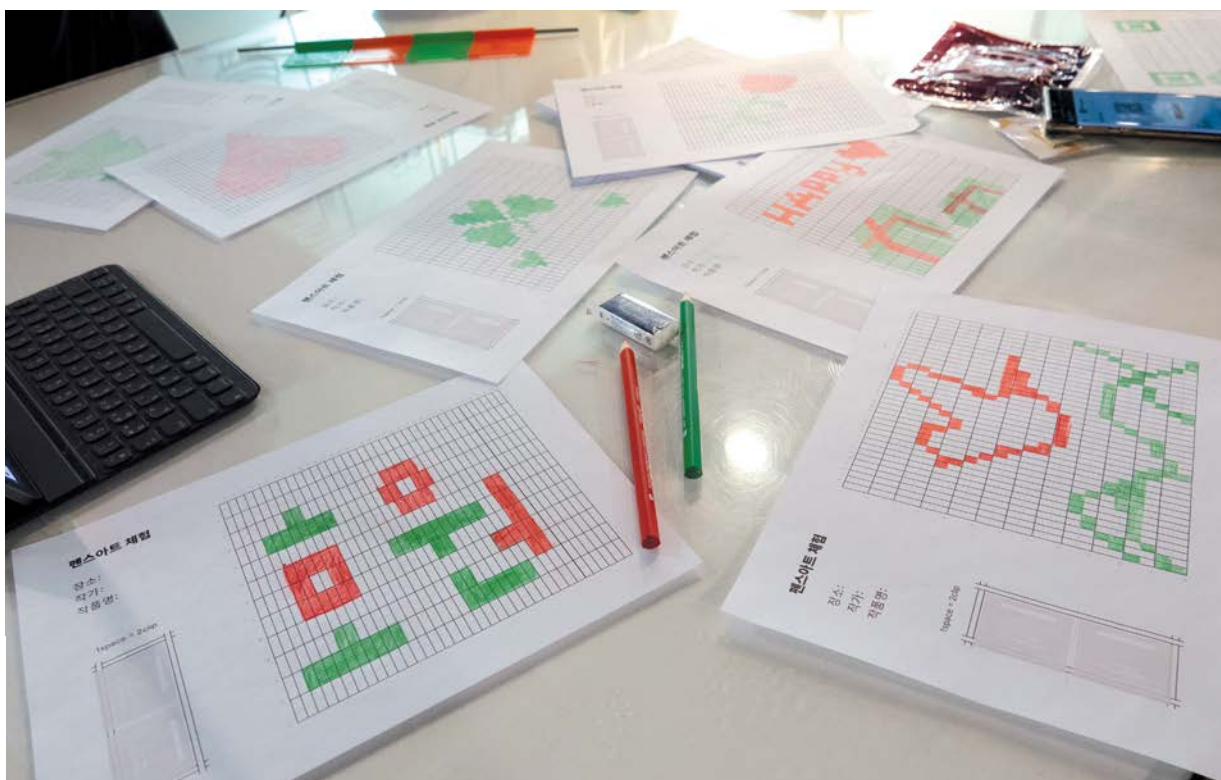
외미마을에서 실험을 진행하셨는데, 마을이나 체험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쓰레기, 철거 건물 등을 가리는 용도, 낯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용도 등 경계와 가림의 용도로 쓰이는 펜스가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로 재탄생하면서 오히려 공간을 긍정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바꾸어주었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그림을 직접 설치하는 시민은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하면서 예술로 상생하는 실험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시민과 함께하였나요?

펜스아트클립을 직접 체험한 시민은 8명입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설치된 펜스아트를 관람한 시민은 약 6,000명으로 예상됩니다. 1호선 회룡역 인근 마을 유동 인구가 하루에 약 100명이고, 전시 기간이 총 60일 이거든요.





펜스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펜스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물인데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술 도구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가림, 출입 금지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 펜스가 설치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쓰임으로써 마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미술관처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이 없어도 시각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미술관 경험을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펜스아트클립
QR코드

펜스아트클립 실험실이 끝났는데 새로운 가설을 세웠나요?

기존에는 미술관과 시각예술 체험, 향유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펜스와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야광 클립으로 우범 가능성이 높은 거리에 있는 펜스에 그림을 설치한다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컬렉티-부(Collecti-Bu)

실험내용 ‘여럿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의 Collective와 의정부의 합성어인 ‘컬렉티-부’는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부 굿즈를 만들고 확산하는 실험입니다.

추진기간 2023년 7월~12월

추진장소 의정부(거점: 의정부시 청년몰)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김은비(티모) | 팀원 이도형(갤럭시), 이예슬(스리)

세부진행 일정

누가 컬렉티-부
언제 2023년 7월~12월
어디서 의정부의 전 권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의정부 설문을 모티브로 제작한 컬렉티부 굿즈 4종을
어떻게 문화도시의정부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확산
왜 의정부 시민의 생각을 반영한 굿즈를 제작하고 효과적인 확산을 실험하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로컬굿즈제작 #의정부시민 #설문 #마그넷
 #디퓨저 #협력 #연계

실험실 가설

컬렉티부는 시민의 의견으로 굿즈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실험입니다. 의정부 시민은 이곳을 어떤 색, 향으로 인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문화자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설문으로 취합하여 배포한다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로컬굿즈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컬렉티-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Collecti-Bu는 지역을 찬찬히 훑아보는 것이 즐거운 가야금 연주자 ‘티모’, 전국의 풍경을 모티브로 인스턴트필름 마그넷을 만드는 ‘스리’, 조향사 ‘갤럭시’ 이렇게 세 명의 동갑내기 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의 실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정부가 아닌, 시민이 생각하는 의정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에서 출발해요. 기획, 디자인, 조향하는 세 사람이 모여 의정부 굿즈를 제작하려고 했을 때 ‘설문’을 수집수단으로 정해 시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자 했고, 답변의 결과로 ‘컬렉티부 스톤 디퓨저’ 2종과 ‘의정부 마그넷’ 2종을 제작했어요.

실험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2022 100만원실험실 상반기>의 ‘생각확장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각자 다른 실험실을 운영하는 실험지기였죠. 그때만 해도 같은 시간대 워크숍 동기라는 위치에 서 시작했던 터라 꽤 휘발되기 쉬운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의정부에서 같이 일도 하는 사이(?)로 좀 더 이어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설문 문항에서 패키징 디자인 요소 하나까지 함께 고민했고, 제작 과정을 서로에게 공유하며 작업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지금, 컬렉티-부의 굿즈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멋졌지만, 특히 올해는 사람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이기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컬렉타-부 굿즈가 갖는 타 도시의 굿즈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만들어진, 혹은 만들 굿즈 예비군을 투표로 결정해 제작하는 방식은 기존에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굿즈 디자인의 경우 디자이너 개인의 예술적 역량으로만 제작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창작 시 지자체를 대표하기 위한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을 봐 왔습니다.

하지만 컬렉타-부의 로컬 굿즈 제작은 시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나 기획자 본인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여타 굿즈를 제작하는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시민이 직접 작업과정에 의견을 더하는 것, 설문을 통해 제작하는 것, 제작된 굿즈를 다른 자매 사업과의 협업으로 확산 지점을 찾아가는 등 일련의 과정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꽤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컬렉타-부는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굿즈를 사기 위해 경기도 여러 곳을 비롯한 강원도, 전라도, (체감상 전국 팔도...) 해외에서도 문의가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로컬굿즈 마니아층이 생각보다 꽤 두텁고 로컬굿즈에 대한 선호도가 생각보다 꽤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컬굿즈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컬렉티부 팀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지점입니다만, 역시 양질의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역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잘 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다음에 다시 만들게 된다면 순환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리필 스테이션 운영 등을 통해 콜라보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고, 로컬굿즈 인프라를 확장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레드카펫영화제

실험내용 의정부 독립 영화제를 열어 시민들과 영화인들의 축제를 만든다.

추진기간 2023년 7월 1일~9월 21일

추진장소 의정부아트캠프 &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상영관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김혜연 | 팀원 양준필, 김희승

세부진행 일정

누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신진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

언제 2023년 9월 19일~21일(3일간)

어디서 의정부아트캠프 및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상영관

무엇을 제2회 의정부레드카펫영화제

어떻게 상영작을 관람하고, 영화인과 관객이 서로 소통하고, 지역예술인이 무대를 빛내는 '연결'의 형태

왜 '우리가 설 레드카펫은 우리가 깔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영화제를 함께 만들며, 신진 영화인들의 작품을 알리는 의정부 로컬 영화제를 선보이기 위함

실험실 키워드

#지역예술 #독립영화제 #네트워킹

실험실 가설

의정부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로컬 영화제가 가능할까?



'레드카펫영화제' 실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로컬 커뮤니티, 의정부 바이브에서 독립영화 모임 등 영화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독립영화를 상영관에서 관람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독립영화관 혹은 영화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느꼈던 와중에 신진 영화인 대다수가 대형 영화제의 편수 제한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없다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드카펫영화제>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신진 영화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독립영화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레드카펫영화제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나요?

의정부 '로컬' 영화제의 가능성 발견

제2회 의정부레드카펫영화제는 의정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행사 진행자, 연사, 모데레이터(사회자), 공연팀 모두 지역예술인과 지역활동가들로 꾸려졌습니다. 함께 레드카펫을 깔았고 모두 각자 제자리에서 최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과정이 빛났습니다.



협업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민 이외에 어떤 협업이 이루어졌나요?



시민 참여자 수가 30명 정도 됩니다. 영화제 진행자, 연사, 공연자, 서포터즈 등 모든 행사 참여자들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 시민들이 주가 되어 적극 협업해주셨고요. 의정부문화재단 및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지역 내 상영 환경이 갖춰진 공간을 대관하여 영화제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영시간표도 두 공간을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지원을 받아 행선안내게시기, 전시공간 내 홍보를 진행하였고요. 공공의 협조를 받아 의정부아트캠프 상영관 근처인 의정부역 인근 도로변 가로등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1회 영화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을 하나만 꼽아주세요.

영화제 기간, 영화제 출품작, 기획 인력 등 규모가 예년보다 더 커졌어요. 'UIFF'라는 영화제 공식 명칭을 사용한 점도 1회와는 다르지요. 이외에도 나아진 점이 많지만,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실험실의 가설인 “의정부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로컬 영화제가 가능할까?”에 집중한 프로그램을 뽑고 싶네요. 그럼, 지역예술가 초청 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 전시나 공연이 아닌 ‘영화’를 매개로 한 지역예술가 초청 세션을 기획하였습니다. 성민희 시각 예술가와 이순주 안무가의 인생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상 깊은 영화 주제곡을 테마로 기획한 음악 공연 등도 이루어졌답니다.



레드카펫영화제에 지속성을 위한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한다면, 어떤 가설을 세울 건가요?

레드카펫영화제가 지역 상권과 결합한
축제의 장이 될 수는 없을까?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및 타지에서 영화제를 찾아오는 관객들이 관람이 끝난 후 인근 골목 상권에서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영화제 기간 중 상영관 인근 골목 자체가 축제의 거리가 되면 당장은 영화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영화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될 거예요. 영화제가 상영관 안팎으로 한정되는 게 아닌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국도거리



- 실험내용** '낭만의 도시' 의정부 브랜딩을 위한 로컬리즘 팝업스토어
- 추진기간** 2023년 7월 1일~11월 19일
- 추진장소**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 (구)국도극장 인근
-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양준필 | 비주얼라이저 김승요, 방경지, 서보영, 성민희, 이동영, 이만혜

세부진행 일정

- 누가** 로컬 크리에이터 크루 비주얼라이저가
- 언제**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부터
11월 19일 일요일까지
- 어디서** 의정부시 행복로 - (구)국도극장 일대
- 무엇을** 로컬리즘 팝업스토어를
- 어떻게** 의정부문화원,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와
협업으로 개최
- 왜** '낭만의 도시' 의정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시민에게 각인하기 위해

실험실 키워드

- #로컬리즘 #로컬크리에이터
#팝업스토어 #상권연계

실험실 가설

우리 동네 골목 이름의 유래를 알면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비주얼라이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비주얼라이저는 문화도시의정부를 통해 만난 기획자, 디자이너, 에디터 등으로 구성된 로컬 콘텐츠 크루입니다. '느슨하게 연결되고, 치열하게 고민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로컬을 구성하는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아카이브하며, 콘텐츠로 재구성해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명의 크루가 등록되어 비정기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 문화도시 실험실에 <의삼동길> 실험실로 선정되어 아카이브 책자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약 3일간 운영된 팝업스토어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했습니다.



2022 문화도시실험실을 통해 발견한 점을 2023 문화도시실험실에 적용한건가요? 두 실험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나요?

지난해 문화도시실험실을 통해 추진했던 <의삼동길>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이 도시에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0인의 상인들의 명부가 적힌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파편화되고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상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각자의 생업을 영위하는 30인의 상점 운영자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의미했습니다. 이미 골목, 거리에는 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사업을 운영하는 상점 운영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발견했으며,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멈추지 않고 확장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팝업스토어에는 다른 거리, 골목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하나 같이 ‘우리 거리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2023년 문화도시실험실을 통해 기존의 의삼동길을 확장해 민간(시민)의 주도로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상권으로 만드는 실험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상권과 어떻게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 싶습니다.



‘국도거리’는 지명인가요? ‘국도거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실험의 대상은 ‘행복로-국도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에서 약속을 잡을 때 ‘국도에서 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9월 영업을 종료한 국도극장은 과거 경기도부 최초의 멀티플렉스였던 <태흥씨네마 (현 의정부태흥CGV)>의 전신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했으며, 중앙극장, 의정부극장과 함께 강북, 경기도부 지역의 영화광들이 영화를 보러 찾아오던 경기도부 영화산업의 관문과도 같은 극장이었습니다. 극장은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여전히 ‘국도 앞에서 만나자’라며 약속을 정하고 국도극장이 있던 거리로 모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기원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행복로-국도거리(가칭)를 잇는 거리의 사람, 사람들의 기억을 아카이브하고 싶습니다. 국도에 추억이 있는 중장년, 국도라는 이름은 알지만 추억은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국도의 의미를 환기하고 국도거리라는 이름의 유래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싶습니다.

국도거리 실험실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낭만의 도시’ 의정부 브랜딩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문화도시 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효능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 ① 2000년대 초반까지 갈비골목으로 유명했던 행복로-(구)국도극장 일대 1층 공실 임차
- 의정부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의 1층 공실 단기 임차
- ② 의정부문화원 기억저장소 팝업스토어와 협업(12월 28일 개관)
- 팝업스토어 공간을 함께 기획하고 전시, 인생 세킷 촬영 등 프로그램 협업
- ③ 문화도시실험실 <의정부 제일시장 경기도부 NO.1 Market>과 협업
- 제일선선요리대회 수상자 음식 체험, 솜사탕 증정 등 프로그램 협력
- ④ 문화도시 <333문화살롱> 참여자와 협업
- 시민매개자 구구단, 오선상의 아리아, 이킴이들 참여자와 협력
- ‘무대 없는 무대’를 바탕으로 팝업스토어 내 축하 공연 진행



의기투합자회사

실험내용 무형의 회사, 유형의 공간 설립 프로젝트
추진기간 2023년 7월 20일~11월 30일
추진장소 온라인(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오프라인(민락동)
참여인력 체인지메이커 조혜영 | 의기투합자회사 백수사원

세부진행 일정

누가 무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언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어디서 온라인 비대면 가상 공간과 민락동에
 임시 설립된 가상 사무실에서
무엇을 가상의 회사 놀이를,
 출퇴근 및 업무(루틴) 인증을
어떻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알리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업무 인증을 한다.
 오프라인 근무, 대면 근무가 필요할 시
 가상 사무실로 출근한다.

실험실 키워드

#무업 #고립 #청년공간 #가상의회사

실험실 가설

**무업 상태인 청년에게 피난처 같은 물리적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면, 소속감 결여, 무기력
 등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기투합자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형의 회사, 유형의 공간
 ‘의기투합자회사’입니다.

의기투합(意氣投合)과 합자회사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무업, 무직 상태인 청년들이 모여 의기투합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회사 밖 청년들이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소속감을 갖고 싶은 작은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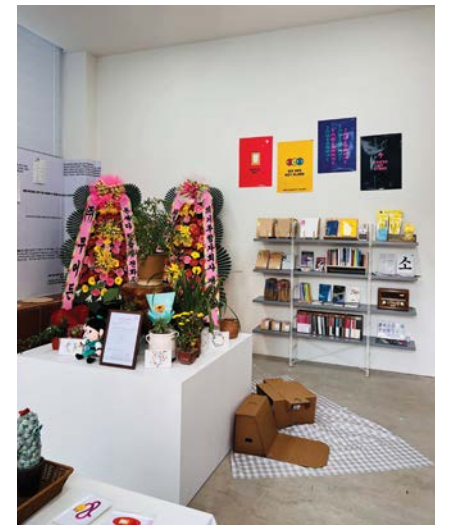
유형의 공간 설립 프로젝트였는데, 온라인 활동을 먼저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각확장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다른 체인지메이커가 제 실험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업 청년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를 백수사원이라고 부르고, 출퇴근 인증도 해야하고, 각자 업무도 정해야 하는, 회사이나 회사가 아닌 이런 컨셉도 어렵게 받아들여더라고요. 워크숍이 끝나고 실험을 시작했을 때, 내가 진짜 참여자를 모집하면 이런 반응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베타버전을 운영해 보는 것처럼 실험을 위한 예비 실험이 필요하겠다는 싶어! 온라인 참여자를 모집하고, 먼저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서 출퇴근과 업무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촘촘한 기획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었기에 참여자 피드백에 따라 그 틀을 갖춰 나갔습니다. 한 예로 제가 4시간 근무라는 꿈이 있어서 의기투합자회사 백수사원(참여자)에게도 출근 인증을 하고 4시간 이내에 업무 인증을 사진으로 해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시간 제한을 당일 자정으로 풀어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4시간 내에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여유롭게 백수사원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시간 제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오프라인 공간을 구할 때가 어려웠는데, 더운 날씨에 부동산 알아보러 동네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었는데, 단기 임대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실험실명을 말하면 더 헛갈릴까봐 또래 청년들 10명 미만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아지트로 쓸 생각이며 술 안 마시고, 조용히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해도 집주인분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오프라인 공간 운영 기간이 짧은 점이 아쉽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이유는 사전에 SNS 홍보, 또는 비대면 참여자 모집 등 온라인 상에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이 보여짐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늘렸습니다. 실험을 다 끝내고 나니 ‘무형의 회사, 유형의 공간 설립 프로젝트’라는 본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또한 오프라인 공간 조성 시 온라인 프로그램 실험여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하고 싶었으나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70%가 관외 거주자여서 적극적인 대면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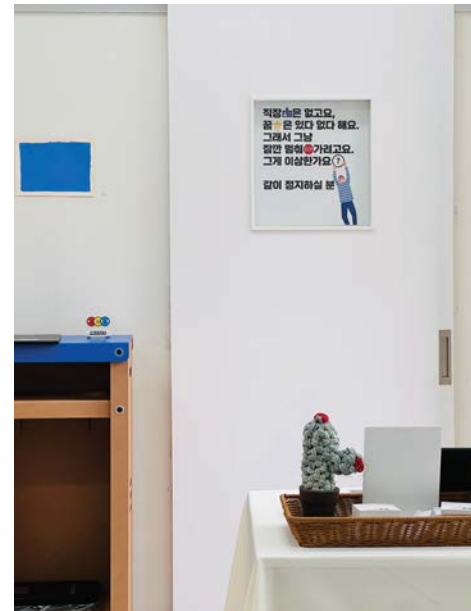




유형의 공간을 설립했을 때 의미를 둔 공간이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공간은 아니고 소품! 가짜, 가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에는 ‘공석(空席)’이라고 적혀있어요. 의기투합자회사 백수사원들이나 공간에 방문해주신 분들이 회사 컨셉에 충실하게 임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이곳에 대표는 공석입니다.”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대표가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의기투합자회사의 비전이 담긴 소품이죠.

그리고 공간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을 기획했으나 오프라인 공간 운영 기간이 짧아지면서 팝업스토어로 변경되고, 이름은 의기투합자회사답게 ‘파업’스토어로 정했습니다. 영문 표기명은 POWER-UP STORE입니다. 한글명도 영문명도 의기투합자회사다운 이름답죠?



의기투합자회사 지속성을 위한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한다면, 어떤 가설을 세울 건가요?

소속감 이외에도 성취감, 자존감 등 무언가 또는 무기력 청년에게 필요한 감정과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과 감정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실험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의기투합자회사의 첫 가설을 혼자 세웠는데, 웬지 이후에 실험은 의기투합자회사 백수사원과 함께하고 싶으니, 새로운 가설도 같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세워지고, 우리의 실험이 시작된다면 좋은 소식 다시 전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도록 요란하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의기투합자회사
QR코드



우리들의 꿈은 더 멀리 갈 수 있어
<문화도시실험실> 아카이빙북

문화도시의정부 링크트리 @ccity_ujb
문화도시의정부 인스타그램 @ccity_ujb
문화도시의정부 페이스북 @ccity_ujb
의정부문화재단 www.uac.or.kr

발행처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발행인 대표 박희성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센터장 소홍삼, 강창모, 김미정, 박수빈, 백정희, 심하은,
오현주, 이동수, 이민형, 이사야, 이예닮, 이예진, 이은풍

글·편집 강창모, 조혜영, 강민지
제작·디자인 온더덩

ISBN 979-11-982014-4-7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031-850-5123~4 / ccity_ujb@naver.com

© 의정부문화재단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의정부문화재단에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